

1.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리우 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8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을 결성하고 1990년 기본적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6월리우 회담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협약 가입국의 의무사항은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인위적 요인에 의한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2.교토의정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 한다. 제재되는 6가지의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인데, 이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이 이산화탄소이므로 일반적으로 배출권이라 하면 탄소배출권을 말한다.

3.몬트리올의정서

1987년 9월에 채택되어1989년 1월부터 발효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0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4.비엔나협약

1985년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진 보편적인 국제협약이다. 오존층을 변하게 하는 모든 인간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영향으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제네바협약

1975년 스웨덴 등 북유럽 대표들이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문제를 공식 제기하여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약이 채택되고 1983년 3월에 발효되었다. 1979년 제네바 협약은 특히 유럽에서의 산성비 문제가 심각하고, 국경이동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주로 유럽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이 협약은 국가주권을 인정하되 국가 영역밖에 환경적 피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헬싱키의정서

1987년 발효된 협약이며, 1960년대 스웨덴 지역의 소후들이 산성도 증가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OECD에 요구했다. OECD의 조사결과, 호수산성화의 주요 요인이 인접국가로부터 이동되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상당부분 기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1979년에는

유럽 35개 국가 간에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헬싱키의정서는 그로부터 8년 후인 1987년 유황배출 또는 월경이동을 최저30% 삭감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된 골자로 하는 것이다.

7.소피아의정서

정식명칭은 ‘질소산화물 배출 또는 월경이류의 최저 30% 삭감에 관한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조약의정서’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유럽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1980년대에 들어 산성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1987년 헬싱키의정서가 채택된 후 1988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삭감에 관한 소피아의정서가 체결되었고, 목적은 1994년까지 질소산화물의 연간 방출량 또는 국경이동을 1987년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Environment, UNCHE) [유엔 인간 환경 회의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회의를 말한다]의 성과를 이어받아 1972년 말 유엔총회에서 설치가 결정되어 1973년 1월 1일 발족된 기구로, 유엔 내외의 환경 문제에 관한 활동의 조정과 촉진을 임무로 한다.

유엔환경계획이 중심이 된 활동으로는 기상변화·대기오염에 의한 인간의 건강 변화·해양오염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지구환경 모니터링 시스템(GEMS), 환경변화 요인의 관측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컴퓨터로 분석하는 지구지리 정보시스템, 공해나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제환경 정보시스템(INFOTERRA), 인간과 인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유해물질 등록제도(IRPTC) 등이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사무소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약칭은 유네프(UNEP)이며, 때로는 유넵이라고 칭한다

[출처] 다음 백과